

자신의 마음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사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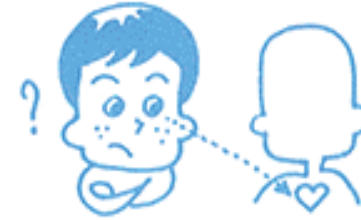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무엇이든 각자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자유이기에,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장만을 밀고 나간다면 충돌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신님께서서는 ‘부모 자식 간 부부간 형제간이라도 모두 각각으로 마음 다른 거야’ 라고 알려주시며, 우리들의 마음 쓰기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했으면이라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부족의 마음만 쌓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즐거운 삶의 천리교

자신의 마음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무엇이든 각자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자유이기에,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장만을 밀고 나간다면 충돌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신님께서서는 ‘부모 자식 간 부부간 형제간이라도 모두 각각으로 마음 다른 거야’ 라고 알려주시며, 우리들의 마음 쓰기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했으면이라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부족의 마음만 쌓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즐거운 삶의 천리교

인간이란 몸은 차물,
각자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차물의 증거

(계시록 · 지도말씀 = 1887. 12. 6)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
다. 빌린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신님께서 처음으로 명확하
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

고 이 아버지신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수호해 주고 계시
기 때문에, 어떠한 부자유도 없이, 즉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 소화 등의 몸속의 모든
작용을 신님께서 맡아 주십니다. 몸의 기능과 마음 쓰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신님의 수호를 마음
깊이 새기고, 빌려주신 몸의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인간이란 몸은 차물,
각자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차물의 증거

(계시록 · 지도말씀 = 1887. 12. 6)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
다. 빌린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신님께서 처음으로 명확하
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

고 이 아버지신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수호해 주고 계시
기 때문에, 어떠한 부자유도 없이, 즉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 소화 등의 몸속의 모든
작용을 신님께서 맡아 주십니다. 몸의 기능과 마음 쓰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신님의 수호를 마음
깊이 새기고, 빌려주신 몸의 감사함을 느껴보세요.